즉시 배포용: 2020년 1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21년 예산에 세금 체납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학교 세금 감면 프로그램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제안 발표

뉴욕주, 재산세 미납 주택 소유자에 대한 학교 세금 감면 프로그램 혜택 제거 예정

지자체, 조세 재무부에 세금 체납자를 보고할 계획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1년 행정부 예산(FY 2021 Executive Budget)에서 세금 체납 부동산 소유자에게 학교 세금 감면 프로그램(School Tax Relief Program, STAR)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학교 세금 감면 프로그램 혜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에 따라 지자체는 학교 세금 감면 프로그램 공제 또는 면제를 보류할 수 있도록 세금 체납자를 조세 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연체된 재산세가 납부될 때까지 학교 세금 감면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책임감 있는 납세자가 학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학교 세금 감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닫음으로써 뉴욕은 부정행위자를 단속하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근면한 납세자에게 마땅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세 재무부 커미셔너 Michael Schmidt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한 주택 소유자만이 학교 세금 감면 프로그램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제안은 해당 프로그램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도록 보장하고, 재산세 납부 준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주 전역의 주택 소유자를 위한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2013년에 체납자를 단속하기 위해 학교 세금 감면 프로그램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학교세 감면 신청에 중대한 허위 정보를 기재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6년간 감면을 받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015년, 조세 재무부는 그동안 불법적으로 학교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혜택금을 만회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해당 권한은 이전에 지역 평가자에게만 있던 권한입니다.

학교 세금 감면 프로그램은 학교 재산세 감면으로 34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50만 달러 이하의 수입을 가진 주택 보유자를 위한 기본 학교세(Basic STAR) 공제 혜택, 25만 달러 이하의 수입을 가진 주택 보유자를 위한 기본 학교세 면제 혜택, 88,050달러 이하의 수입을 가진 노령 인구를 위한 강화된 학교세 감면(Enhanced STAR) 혜택이 포함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